

화산지구 농촌용수사업 국비 166억원 확보

물길 확장, 강진 농업에 새 숨결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일원 농업환경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2026년 기본조사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상습 가뭄 피해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성과는 강진군을 비롯해 국회, 전남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발로 뛰며 만들어낸 결실이다. 강진군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사업은 군동면 화산리 화산저수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66억 원(국비 100%)이 투입되어 5개년

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저수지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용수로 4.1km 및 이설도로 1.8km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101.2ha에 더해 보강 28.2ha, 신규 46ha를 포함한 총 175.4ha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화산저수지 유효저수량은 451,000톤으로, 필요 수량 대비 481,500톤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동안 말단부 지역은 별도의 수원이 없어 매년 반복적인 가뭄 피해를 겪어왔다.

또한 가뭄 시 군동천 유입수 감소로 취입보와 양수장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



는 등 농업용수 공급 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수지 총저수량은 932,500톤으로 확대되어 부족 수량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실시계획 및 본격적인 사업 착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